

대한양계협회 종계지부 1호의 자긍심



▲ 안태엽 논산종계지부장

논산시 종계지부(지부장 안태엽)가 지난 5월 31일자로 설치승인을 받아 첫 종계지부로써 본격적인 지부활동에 들어갔다. 본고에서는 지난 6월 25일 종계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종계지부를 설립한 논산시 종계지부를 방문하여 종계 지부활동과 종계지부 1호로써의 자긍심과 각오를 들어보았다.

가축사육의 최적의 환경조건

논산의 기후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뚜

렷하고 온대성 기후로 연평균 기온이 10.8도이며, 가장 더운 8월 평균기온은 25.2℃, 가장 추운 1월의 평균기온은 -5.4℃로 난후기와 한후기의 기온 편차는 16.1℃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겨울철에도 비교적 따뜻한 편으로 축산업을 영위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논산시종계지부의 모태는 1995년 논산육종회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르렀다. 안태엽 지부장, 정동채 이사, 홍성현 총무를 중심으로 결속이 다져져 있고 신현오, 김석호, 강영균 이사와 강경구, 윤현수 감사가 지부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논산시관내에는 25농가가 종계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40만수규모로 경쟁력 면에서는 어느 지역 못지않은 병아리 품질을 자랑하고 있고 종계업중 전국최상이라고 볼 수 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밑바탕

논산시 임성규 시장은 씨(종자)산업인 1차산업이 이곳 논산시에 전국의 10%를 차지할 만큼 종계가 사육된다는 것만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6월초 300만수에 해당하는 뉴캐슬 B1 백신을 공급받았으며, 쉼까지 무상으로 지원받았다. 이처럼 논산시 오종근 축산과장은 실무적인 부분을 담당하면서 주기적으로 축종별 협의회를 거쳐 종계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약속하였다.

더욱이 논산계룡축협 임영봉 조합장은 논산중계인의 편의를 위해 선뜻 지부사무실을 제공하였으며 이에 지부회원들은 임영봉 조합장에게 거듭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안태엽지부장은 “주위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 축스럽다며 한편 대한민국 최고의 중계지부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논산시 중계지부는 매월 마지막 월요일에 월례회를 가짐으로써 회원의 단합과 주기적으로 세미나 및 초청교육을 실시하여 회원자질에 대한 수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활발한 활동으로 회원참여 유도

안태엽 지부장은 작년 1월 취임하여 올해 목표로 논산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중계사육 농가의 회원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크게는 전국 중계산업이 발전되는 것이 첫번째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지부장 성격상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발로 뛰면서 회원의 어려운 점을 상호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회원들은 말한다. 특히 홍성헌 총무가 지부 살림을 이끌고 여러 임원들이 솔선수범하여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 ‘잘되는 지부는 뭔가 다르다’는 분위기가 있다. 현재 25농가 회원에 가입되어 있지만,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회원참여를 유도하여 회원들을 위한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논산 및 인근지역의 회원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뉴캐슬 백신 하반기 물량 300만 수 지원과 향후 오일백신지원에 관해 내년부터 백신 100% 지원을 요청하여 계획이 확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계생산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부 자체적으로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정기적인 농가교육을 개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발생지



▲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안태엽 지부장, 홍성헌 총무, 윤현수 감사, 신현오 이사, 강경구 감사, 정동채 부지회장(이사)

역과 불과 몇km떨어지지 않아 매일같이 민과 관이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한 결과 논산시가 우수방역지자체로 선정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 중계농가는 차단방역과 계사 소독을 매일같이 실시하고 전염성질병에 관한 지식습득 및 정보교환으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다.

하나로 똘똘 뭉치자

양계업은 종계, 산란계, 육계로 여러 사람이 뭉쳐 이루어지는 업종이라 향후 양계인들이 한마음이 될 기회를 마련하여 축산인으로써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안태엽지부장은 회원들에게 회원들이 있어야 지부가 존재한다면서 다만 “지부가 회원들에게 무엇을 해주기 전에 지부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지부회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고 상호이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회원들은 신기술과 타 농장에서 일어났던 교훈을 잊지 말자고 전했다. 종계업을 하는 농가를 만나면 물론 자신만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농가들의 사례를 통해 본받아야 할 사항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리 | 기영훈 기자)

